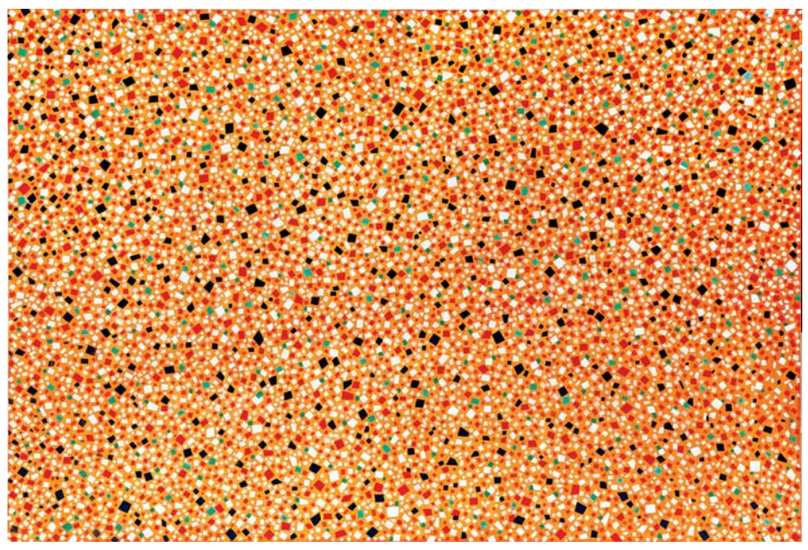
“무수한 점…관계의 소중함 깨달았죠”

정송규 무등현대미술관장 ‘오늘이 기적입니다’
개관 14주년 기념전 내년 3월까지 3부로 나눠
초기 드로잉부터 신작까지 전체 작품세계 망라

제1전시장 전경.


‘Delight-축제’

지난 2007년 개관한 무등현대미술관은 개관전 ‘굿모닝 광주’를 시작으로 13년 동안 현대 미술문화 발전에 기여해 왔다. 2012년부터는 환경미술제를 시작해 무등현대미술관만의 연례행사로 자리잡았고, 창작레지던시 운영으로 신진작가들의 창작산파 역할도 해오고 있다.

그 중심에 정송규 관장이 있다. 정 관장은 오승우와 임직순 선생의 제자로 60여년 창작의 외길을 걷고 있는 대표적 여성미술가 중 한 사람이다.

정 작가의 대표작 ‘그리움’은 점의 형태로 반복되는 작은 네모들을 대형 캔버스에 배열한 추상작품이다. “그림의 점들은 내가 살아온 세월”이라고 말하는 작가는 “대상을 그린 게 아니라 인생을 그린다”고 작은 점들의 소중함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작가의 초기 작품부터 드로잉, 대표작 ‘그리움’, ‘생명의 소리’와 신작 ‘delight-삶’ 등 작가의 전체 작품 세계를 망라한 전시가 내년 3월까지 무등현대미술관에서 마련된다.

미술관 개관 14주년을 기념해 기획한 이번 전시는 ‘오늘이 기적입니다’를 주제로 3부로 나눠 진행된다.

1부 ‘오늘이 기적입니다’는 지난달 25일 시작해 12월 1일까지 회화와 입체 등 총 17점을 선보인다.

작가의 대표작 ‘생명의 소리’와 신작 ‘delight-삶’ 등을 만날 수 있다.

작가의 작품 속 점들은 조각보를 모티프로 여성으로서의 어머니의 삶을 표현한다. 여성의 부드러움과 강직함에 특유한 사랑의 정서를 형상화하고 여기에 삶의 환희를 그려 넣어 이야기를 전한다.

‘생명의 소리’는 퍼져나가는 소리의 운동감을 형상화 했다. 소용돌이 문양의 운동감은 툴링(tooling)의 방향과 밀도에 따라 형성되는 패턴에 의해 연출된다. 작가는 흑백 점묘 찍기의 반복되는 패턴의 운동성과 점의 밀도에 의한 방향성의 형성에 흥미를 느낀 듯하다.

‘Delight-관계’는 레고(블럭)로 작품의 이미지를 표현했다. 화려한 색감을 가진 레고는 어린 시절 가지고 놀고 싶은 장난감 중 하나다. 나열방법에 따라 상상하는 모든 형태들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너와 내가 마주치듯, 블럭들은 우연히 만나 길이 되고, 꽃이 되고, 서로 관계를 맺은 공간이 된다.

2부 ‘내가 살아온 이야기’는 12월 23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회화 21점을 전시한다.

대표작 ‘그리움’은 수천수만의 점(Dot)들로 거대한 물결과 초원, 우주를 만들어내고 있는 최고의 정신적 경지의 축약이다.

그의 점들은 원시적 단순성을 갖지만, 연속의 집합이 모인 점들은 거대한 유기적 생명과 우주를 표현하고 있다.

내년 3월 한달간 예정된 3부에서는 ‘Drawing’전이 마련된다. 작가의 초기 회화 12점과 함께 인체의 미를 기반으로 제작한 드로잉 작품 250점을 선보인다.

작가는 “이번 전시를 준비하며 자연스레 화업 인생도 정리하는 시간이 됐다. 나를 돌아보고 관계의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이었다”며 “관계로 맺어진 이 세계를 탈출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또다른 관계를 통한 새로운 공간과 세계의 형성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연수 기자

잊혀진 필름 속의 사람들

5·18기념문화센터 사진전

전남도청의 어린 시민군./한국일보 제공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를 기록한 미공개 사진이 공개된다. 5·18기념재단은 한국일보와 함께 ‘잊혀진 필름 속 사람들’ 사진전을 내년 2월 24일까지 5·18기념문화센터 전시실에서 진행한다.

5·18기념재단은 그동안 5·18 당시 사진과 영상 다큐멘트 수집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번 ‘잊혀진 필름 속의 사람들’ 사진전은 1980년 한국일보의 자료들을 수집하고 디지타이징 작업을 거쳐 개최하게 됐다.

1980년 한국일보는 고 김해운, 한융, 박태홍, 김용일 사진기자 4명을 광주에 파견해 90롤의 필름을 촬영했다. 하지만 당시 군부정권의 검열로 단 한 장의 사진도 신문에 실리지 못했다. 그 후 필름들은 사진기자들 조차 상태와 존재 여부를 알지 못한 채 잊혀져갔다. 다행스럽게도 잊혀진 필름들은 한국일보 자료실에 보관되어 있었다.

2018년 한국일보와 5·18기념재단은 이 필름의 디지타이징 작업을 진행해 디지털 원본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필름 90롤에 찍힌 1,991장의 사진이 발굴됐다.

이번 전시는 그 원본 중에서 117컷의 필름을 4개의 폴더(▲부딪치다 ▲저항을 준비하다 ▲수습하다 ▲눈을 감고 보다)로 분류하고, 에필로그로 ▲병원에서 ▲역사의 조각을 맞추는 사람들 ‘기자’를 추가해 6개 섹션의 전시로 구성됐다. 기존 5·18 사진전들이 80년 당시 상황 묘사와 충격적 이미지로 구성되었다면, 이번 전시는 저항 중심부에 있던 사람들의 평범하지만 아픔을 공유하는 모습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전시 마지막 동선에는 1980년 당시 금남로에서 전남도청을 사수하던 시민군과 기념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AR사진관 ‘시민군과 함께 찍는 사진관’을 만날 수 있다. /이연수 기자

‘Clay person’

소외된 감정의 흔적들

광주신세계미술제 신진작가상 박두리 초대전
내달 8일까지 ‘프로젝트; 긍정적 뜨내기’ 주제

광주신세계갤러리는 2018년 제19회 광주신세계미술제에서 신진작가상을 수상한 박두리 작가의 초대전을 오는 12월 8일까지 진행한다.

‘프로젝트; 긍정적 뜨내기’를 주제로 회화 및 영상 40여 점을 전시하는 박 작가는 자신을 둘러싼 세계와 신념들에 대한 백일몽을 작품으로 표현했다.

작가는 우리가 일상에서 지나치는 풍경, 그 안에서 다시 소환되는 소외된 감정, 그 감정들과 얽혀있는 이야기가 어우러져 만들어지는 백일몽의 이미지를 평면 위에 표현한다.

충족되지 못한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비현실적인 세계를 상상하는 백일몽은 캔버스 위에 유화로, 또는 그 유화의 이미지로 편집된 영상으로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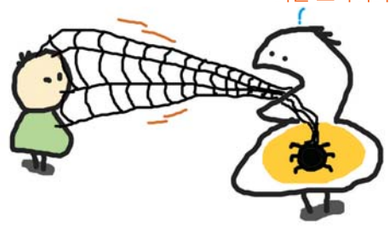
지난 미술제 심사평에서 박두리는 “동양화를 전공했지만 최근 새롭게 시도하고 있는 유화 페인팅 작업에서도 두드러진 성과를 냈고, 특유의 재기발랄하고 자유로운 조형감각이 두드러졌다”는 평을 받았다.

광주신세계갤러리 관계자는 “캔버스와 모니터에 담긴 ‘긍정적 뜨내기’ 특유의 백일몽을 통해 그동안 숨길 수 밖에 없었던 내면 깊은 곳 감정의 흔적을 찾고, 그 감정들이 자연스럽게 밖으로 표출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기 바란다”고 전했다.

박 작가는 전주 출신으로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와 동 대학 일반대학원 동양화과를 졸업했다. /이연수 기자

최윤규의 인문&상상 거짓말

거짓말을 거미줄처럼 내뿜지 마라!
신용은 가는 실과 같아서
한번 끊어지면 다시 잇기가 불가능하다.



거짓말은 결국 남을 감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칭칭 감아 버린다.

신뢰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함께하는 100년 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 · 고객 · 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콕 뱅크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콕!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콕!
바로 바로 확인까지 콕!

올바른 POINT UP 카드
국내 · 외 전 가맹점에서 무제한 포인트 적립!
전 가맹점 최대1%적립 + 생활밀착형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항 라운지 무료이용

NH가성비굿 건강보험2004 (무배당)
가성비를 갖춘 합리적 선택!
심장질환 + 뇌질환 2대 혈관질환!
든든하게 준비하기!
진단비와 수술비를 동시에!!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 · 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운암벽산지점 062)529-5335~6
상무동지점 062)372-3741~2
용산지점 062)526-0222~3
치평지점 062)381-8212~3
쌍촌지점 062)381-6551~2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화정지점 062)372-0421~3
로컬푸드직매장 062)364-8400
유동지점 062)512-1984~5
농성지점 062)361-4472~4
동림지점 062)513-8521~3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운암지점 062)527-3295~6
유덕지점 062)373-3235~6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동운지점 062)528-2640~2
버들지점 062)381-1971~2
운천지점 062)371-2772~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